

대곡사명 감로왕도 국가 보물 지정

경물과 전각·인물을 정교한 필치로 그려 동시기 감로왕도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작품으로 평가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박물관에 있는 '대곡사명 감로왕도'가 올해 초 지정예고를 거쳐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00호로 지정됐다.

'대곡사명 감로왕도'는 1764년 불화승(佛畫僧) 치상(稚相)을 비롯해 모두 13명의 화승이 참여해 그린 것으로 화기(畫記)가 일부 손상됐으나, '대곡사(大谷寺)'라는 문구를 통해 경상북도 의성 대곡사에 봉안(奉安)됐던 불화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구성은 상단에 칠여래를 비롯한 불·보살이, 중·하단에는 의상장편과 아귀 및 영혼들의 생활 장면 등이 짜임새 있는 구도 속에 그려져 있으며, 온화하고 부드러운 색조가 조화를 이뤄 종교화로서 숭고하고 장엄한 화격(畫格)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화면 속 경물과 전각, 인물들의 세세한 모습을 정교한 필치로 그려 동시기 감로왕도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작품으로 평가됐다.

특히 '대곡사명 감로왕도'는 제작 시기가 분명하고, 봉안사찰, 시주자명, 제작주체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18세기 불화 연구의 기준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1978년 원광대 박물관에서 구입한 대곡

사명 감로왕도는 2000년 11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86호로 지정됐으며, 2014년 11월 보물지정신청을 한데 이어 올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보물로 최종 결정됐다.

한편,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은 원광대 박물관은 대학박물관 소장 불화유물 가운데 유일

하게 '대곡사명 감로왕도'가 보물로 지정돼 의미를 더한 가운데 일반인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박물관 4층 불교미술실에 공개전시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평일(공휴일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박물관에 있는 '대곡사명 감로왕도'가 올해 초 지정예고를 거쳐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00호로 지정됐다.

전북대생, 그리스서 12번째 신한류축제 연다

소통하는 민주주의장 '아고라'에서 한류로 소통
댄스공연·사물놀이·판소리 등 다채로운 공연

매년 신한류축제를 통해 우수한 한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CK-1 신한류창의인재양성사업단(단장 김진)이 올해에는 그리스를 찾아 12회 신한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내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그리스 테살로니키와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해 신한류 페스티벌의 주제는 'Korea in Agora'.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했던 민주주의의 장(場)인 아고라(AGORA)에서 한국의 문화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19일 테살로니키 아리스토텔레스 광장과 26일 아테네 신트라 광장에서 한국의 정신과 멋, 흥을 동시에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펼쳐진다.

체험부스는 음식과 의복, 놀이, 공예체험 등 4가지 테마로 각각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공연은 세계 한류 열풍의 주역 K-POP에 맞춘 댄스공연, 한국음악학과 학생들의 사물놀이, 판소리, 판굿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진행된다.

특히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협업을 통해 레드콘 음악창작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주요, 오열)들의 공연이 함께 진

행될 예정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진 사업단장은 "지난 수 개월간 열심히 준비해온 학생들이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양국 간의 문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여준 주그리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아테네시정, 테살로니키 시

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류 페스티벌은 전북대 CK-1 신한류창의인재양성사업단이 주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콘텐츠를 개발해 세계 곳곳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다.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이들은 페스티벌 전문가 실무교육을 이수한 8개 학과의 학부생들이다. 이 페스티벌은 매년 새로운 학생들로 구성되어 2015년부터 3년간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등 11개 국가에서 호평을 받았다.

올해 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페스티벌 공식 페이지(www.facebook.com/KFESTIVAL.CBNU) 또는 인스타그램(@korea_agor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매년 신한류축제를 통해 우수한 한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CK-1 신한류창의인재양성사업단(단장 김진)이 올해에는 그리스를 찾아 12회 신한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익산시 왕궁리유적전시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8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여름방학 캠프를 진행한다.

왕궁리유적전시관 "여름방학 캠프 신청하세요"

왕궁올림픽·탑돌이·점토체험 등 다채로운 일정

익산시 왕궁리유적전시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8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여름방학 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여름방학 캠프는 '백제 왕궁에서 어떤 그릇을 사용했을까?'라는 주제로 백제왕도 익산의 백제왕궁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그릇(토기)을 살펴보면서 백제 왕궁에서 사용된 그릇의 형태와 재질, 특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과 학부모 40명이며, 참가신청은 왕궁리유적전시관 홈페이지(www.iksan.go.kr/wg) 교육활동에서 하면 된다.

여름방학 캠프의 첫째 날에는 우리나라

의 옛날 그릇과 백제 왕궁에서 사용한 그릇 등 2개의 강의가 있고 저녁에는 재미있는 왕궁올림픽과 함께 탑돌이를 하게 된다.

둘째 날에는 왕궁리유적전시관에서 백제왕궁 발굴조사 과정 출토된 그릇(토기)을 보면서 백제 그릇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점토로 전통 방식 그릇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하게 된다.

왕궁리유적전시관 관계자는 "이번 여름방학 캠프는 백제시대 가장 좋은 재료와 기술로 만들어진 왕궁의 그릇을 통해 백제왕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문체부, "대한민국 광고산업 발전 주역을 찾습니다"

'광고인 정부 포상' 후보자 추천 접수 이달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18년도 광고인 정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올해 정부 포상은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해 광고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광고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문체부는 1992년부터 매년 '광고의 날(11.11.)'을 전후해 광고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하고 있다. 특히 포상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포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질적인 공적이 있는 실무 직원, 중소 광고회사 임직원 등 광고산업 발전을 숨은 주역들

포상 대상으로 적극 발굴하고 있다.

후보자 추천은 광고 유관 기관·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모두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수상자는 다수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되는 예비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공개 검증 등을 거쳐 11월 초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23일에 열리는 '2018 한국광고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